

# GI(Group Investigation)모형을 적용한 창작 수업 효과

서 춘 선\*

## 차 례

- I. 연구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1. GI모형의 특성
  - 2. 음악 창작 학습에서의 GI모형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음악적 측면
  - 2. 사회적 측면
- V. 결론

## I. 연구 목적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음악성 발달과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서 음악 창작 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나,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음악적 구성요소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적용하고 종합하며, 창작품을 연주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되는 창작 활동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도 자료와 교사들의 지도 경험 부족, 학생들의 학습 능력 차이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고 있

\* 서울지향초등학교

다. 따라서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sup>1)</sup>에서는 ‘대부분의 음악 수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생 간의 협동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동 학습의 특징은 이미 성공적인 음악 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음악 수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생 간의 수업에서 존재해 왔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업 전략으로서 협동 학습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은 확일적인 지식 위주의 주입식 일제 수업 구조나 경쟁적인 학습 구조를 벗어나 학습자 간에 서로 협조하고 격려하면서 긍정적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인지적, 정의적 학습 효과에 관심을 둔 교수·학습 이론으로, 교과에 대한 태도, 정신 건강, 동료에 대한 친밀감과 믿음, 자아 존중감 등 정의적 영역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를 높이는 인지적 영역에도 효과가 크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협동 학습 모형 중 하나인 GI(Group Investigation, 집단 탐구)모형은 모둠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할 주제를 선택하고 학습 자료의 이해를 분명히 하여,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수정한 정보를 찾아 토론하고 분석하며 이미 배운 지식에 관련시켜서 새로운 지식으로 변형시키기도 하는 고차적인 인지 학습에 유용하도록 구조화된 학습 모형으로서 학생이 학습 활동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haran, 1990).

이에 본 연구는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의 선호에 따라 소모둠을 형성하고 선택한 주제 탐구에 협동적으로 참여하여 완성된 창작품을 만든 후에 함께 연주하고, 발표 및 평가하는 활동을 하는 초등학교 5학년 음악과 창작 수업에 GI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GI모형을 적용한 창작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어떠한 음악적 변화가 있는가?
2. GI모형을 적용한 창작 학습을 통하여 어떠한 사회적 능력에 변화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GI모형의 특성 및 수업 단계

GI모형은 수많은 협동 학습 모형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과제 수행과 협동적인 탐구 과정을 결합시킨 수업 모형 중 하나이다. GI모형은 20세기 초에 저술된 철학, 윤리학, 교육학, 심

1)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 (서울 : 교육부, 2002), 25~28쪽

리학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듀이(Dewey)의 교육 철학으로서 그는 교실에서의 협동을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전제조건으로 보았으며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학습 과정을 수립하고 각자의 경험, 능력, 욕구에 따라 상호간의 계획을 만드는 협동적인 조직체이며 학습자는 학교생활에 모든 면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라고 보았다. 또한 탐구 방법은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협동적인 탐구 방법은 학습 과정의 사회적, 지적 영역과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를 결합시킨다고 하였다<sup>2)</sup>.

<표 1> 웨란의 GI모형 수업 단계

| 단계 | 수업 단계                                                                                      | 수업 내용                                                                                                                                                                                                        |
|----|--------------------------------------------------------------------------------------------|--------------------------------------------------------------------------------------------------------------------------------------------------------------------------------------------------------------|
| 1  | 탐구 주제 정하기<br>집단 구성하기<br>( <i>Identifying the Topic and Organizing Pupils into Groups</i>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자료를 살펴보고 주제를 제안하며 여러 주제들을 분류한다.</li> <li>·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에 따라 집단을 구성한다.</li> <li>· 집단 구성은 흥미에 기초하여 구성한다.</li> <li>· 교사는 정보 수집을 도와주고 집단 구성을 촉진시킨다.</li> </ul> |
| 2  | 탐구 과제 계획하기<br>( <i>Planning the Learning Task</i>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원은 탐구할 내용과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계획한다.</li> <li>· 탐구하는 목적을 알고 역할을 분담한다.</li> </ul>                                                                                           |
| 3  | 탐구 수행하기<br>( <i>Carrying Out the Investigation</i>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원들은 정보를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한다.</li> <li>· 모둠원들은 집단 탐구 과제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li> <li>·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명료화하여 종합한다.</li> </ul>                                               |
| 4  | 최종 보고서 준비하기<br>( <i>Preparing a Final Report</i>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원들은 탐구 발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한다.</li> <li>· 모둠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li> <li>· 모둠원들은 발표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li> </ul>                                          |
| 5  | 최종 보고서 발표하기<br>( <i>Presenting the Final Report</i>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체 수업에서 이루어진다.</li> <li>· 발표의 한 부분으로서 청중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li> <li>· 청중은 전체 수업에서 미리 결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발표의 명료함과 호소력을 평가한다.</li> </ul>                            |
| 6  | 평가하기<br>( <i>Evaluation</i>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탐구 과제를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작업한 것과 그들의 정서적 경험을 공유한다.</li> <li>· 교사와 학생들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한다.</li> <li>· 학습의 평가는 높은 수준의 사고도 평가해야 한다.</li> </ul>                          |

2) 정문성,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02), 555-575쪽

GI모형을 체계화시킨 것 중 하나로 텔렌(Thelen)의 모형이 있는데 그는 민주적 과정의 형식과 역동성을 학문적 탐구 과정에 통합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텔렌의 모형은 학생 개개인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흥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목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수업 절차로서 구성되어 있다. 텔렌의 GI모형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협동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쉐란(Sharan)은 GI모형 자체를 연구하여 GI모형의 실제적 적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협동적인 분위기가 확대될수록 학생들의 과제 성취 의욕과 상호간의 상호 작용이 보다 긍정적이 된다고 하였으며, 협동적 탐구의 목적을 학문적, 사회적 학습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학습 과제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GI모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도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 학생들은 협력하여 그들의 관심에 따라 상위주제에 대한 하위주제를 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질문들을 분류하고, 하위주제에 대하여 공동의 관심을 가진 학생들끼리 소집단을 구성하여, 협동적으로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쉐란<sup>3)</sup>은 학습자들의 개별적 책무성과 집단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GI모형의 수업 단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 2. 음악 창작 학습에서의 GI모형 적용

음악을 연주하거나 만드는 대부분의 음악 수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생 간의 지원, 지지, 동료 음악가의 노력 없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협동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동 학습의 특징은 이미 성공적인 음악 수업에서는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협동 학습은 기존의 음악 교육자들이 사용해 왔던 많은 소집단 학습 방법보다는 더 구조화되어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 교육에서의 그 적용 가능성이 무한하고, 음악 수업에 심도 있게 적용된다면 새로운 수업 전략으로서 음악 교육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음악과의 창작 학습은 학생들의 창작 능력을 발전시키고, 창작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곡이 항상 노래나 악기로 연주되는 경험을 가져야 하며,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 자신의 창작품들을 만들고, 녹음하고, 연주를 듣고,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창작 학습의 일련의 과정들은 도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과제 수행을 위해

3) Slavin, E. (1995)(2nd ed). Cooperative Learning : Theory, Reserach, and Practice. p.101~111.

4)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 (서울 : 교육부, 2002), 25~28쪽

집단별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완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상호 협동하는 태도를 포함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게 구조화된 수업 모형인 GI모형에서 적용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음악 교과를 담임하고 있었던 서울 G초등학교 5학년 중 한 개 학급 35명을 대상으로 2002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1) GI모형에 적용할 창작 학습 내용 선정

5학년 창작 학습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어진 음이나, 리듬 또는 가사에 따라서 리듬이나 가락을 즉흥연주 하거나, 배운 곡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는 등 주어진 조건에 따라 리듬짓기나 가락짓기를 하는 것으로서 창작 학습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리듬 문답, 가락 문답, 모듬별로 4마디 리듬 이어 치기, 가락선 따라 즉흥 가락 연주하기 등과 같은 즉흥연주를 시작으로 리듬, 가락, 론도 형식 창작에 GI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2> GI모형에 적용할 창작 학습 내용

| 순서 | 학습 내용 | 학습 주제                  | 학습 형태            |
|----|-------|------------------------|------------------|
| 1  | 리듬    | 4마디 리듬 즉흥연주하기          | GI모형<br>(4인 1모듬) |
| 2  |       | 8마디 리듬지어 연주하기          |                  |
| 3  | 가락    | 가락선을 따라 즉흥 가락 연주하기     | GI모형<br>(6인 1모듬) |
| 4  |       | 주어진 리듬꼴로 8마디 가락지어 연주하기 |                  |
| 5  |       | 주어진 화음에 어울리는 8마디 가락짓기  |                  |
| 6  |       | 간단한 가락을 변주하여 8마디 가락짓기  |                  |
| 7  | 론도 형식 | 가락 론도곡 만들어 연주하기(리허설)   |                  |
| 8  |       | 가락 론도곡 발표회하기           |                  |

## 2) GI모형에 적용한 창작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쉐란이 제시한 GI모형의 수업 단계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해서 본 연구자가 GI모형을 적용한 음악과 창작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 창작 수업 모형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표 3> 음악과 창작 수업에 적용한 GI 수업 모형

| 단계         |             | 학습 방법                                                                                                                                                        |
|------------|-------------|--------------------------------------------------------------------------------------------------------------------------------------------------------------|
| 탐구 주제 결정   | 분위기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감상곡을 듣거나 제재곡을 연주한다.</li> <li>• 가능한 많은 자료를 동원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li> </ul>                                            |
|            | 기초 기능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탐구에 필요한 기초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li> <li>• 구성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li> </ul>                                              |
|            | 상위주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학습의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한다.</li> </ul>                                                                                    |
|            | 하위주제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인 주제를 제시한다.</li> <li>•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리듬이나 가락을 즉흥연주 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li> </ul>                              |
| 탐구 계획 및 실행 | 모듬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능력, 성격, 기호 등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집단을 사전에 구성한다.</li> </ul>                                                               |
|            | 역할 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등한 역할 분담이 되도록 배려한다.</li> <li>• 역할 분담 이름표를 달고 역할을 숙지한다.</li> </ul>                                                  |
|            | 모듬곡 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선택한다.</li> <li>• 선택한 즉흥연주곡을 수정하고 보완한다.</li> <li>•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한다.</li> </ul>           |
|            | 연주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 계획서를 작성한다</li> <li>• 다양한 악기를 능력에 맞게 분담한다.</li> <li>• 다양한 연주 방법을 동원하여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li> </ul> |
| 발표 준비      | 모듬 발표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곡을 맡은 악기로 연습한다.</li> <li>• 협동적인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돕는다.</li> </ul>                                                  |
| 발표 및 반성    | 리허설 및 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토의하여 정한다).</li> <li>• 모듬 내 상호 평가 및 모듬 간 상호 평가를 한다.</li> <li>• 평한 내용을 참고하여 발표곡을 재구성하여 연습한다.</li> </ul>   |
| 평가         | 연주회 및 활동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 연주 발표회를 한다.</li> <li>• 모듬 활동의 방법과 내용 및 연주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한다.</li> </ul>                                              |

### 3) GI모형을 적용한 창작 수업 실행

#### 가) 협동 학습을 위한 준비

본 연구는 협동 학습이라는 구조의 틀에 창작이라는 학습 내용을 담아보려는 일련의 시도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동 학습 훈련을 위한 수업이 필요했다. 주당 음악 수업 시수 2시간 만으로는 협동 학습 구조 익히기와 창작 학습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4월부터 3개월 동안 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협동 학습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은 우선 협동 학습에 대한 안내로서 목소리 조절하기, 발표자에게 집중하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 규칙 정하기, 역할 분담하기 등 협동 학습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동 학습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익혔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성격 및 기호에 따라 모둠을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어 모듬명, 모듬 구호, 모듬가 등을 정해 연습하고 발표하는 모듬 세우기를 하였으며, 협동 학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동 학습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한 달에 한번씩 협동 학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반성하도록 하였다.

모듬 구성은 리듬과 같은 단순한 요소를 다루는 리듬 창작 학습에서는 4인 1모듬 구조로, 리듬과 가락이 복합된 가락 창작 학습에서는 6인 1모듬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최대한 이질적인 집단으로서 학급 전체가 균등한 집단 구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듬 구성을 위한 집단 탐구 학습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용하도록 하였다.

#### 나) 수업 실행

GI모형에 적용한 음악과 창작 수업을 앞에 제시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근거로 리듬(2차시), 가락(4차시), 론도 형식(2차시)의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1차시 당 수업시간은 80

<표 4> GI모형을 적용한 리듬 창작 학습

| 차시 | 학습 주제    | 학습 내용                                                                                                                                                                                                                    |
|----|----------|--------------------------------------------------------------------------------------------------------------------------------------------------------------------------------------------------------------------------|
| 1  | 4마디 즉흥연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 길이의 다양한 리듬 탐색하기</li> <li>• 1박 길이의 리듬 익히기</li> <li>• 1마디 만들어 리듬 문답하기</li> <li>• 돌아가며 4마디 리듬 즉흥연주 연습하기</li> <li>• 4마디 리듬 즉흥연주 발표 및 평가</li> </ul>                               |
| 2  | 8마디 리듬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박 길이의 리듬 탐색하기</li> <li>• 2마디씩 리듬을 만들어 네 명이 연결하여 8마디 리듬짓기</li> <li>• 리듬 연결 방법 의논하기</li> <li>• 지은 리듬곡 리듬악기로 연습하기</li> <li>• 8마디 리듬곡 연주 발표 및 평가</li> <li>• 리듬곡 수정 보완하기</li> </ul> |

분으로 하였다.

<표 5> GI모형을 적용한 가락 창작 학습

| 차시 | 학습 주제                 | 학습 내용                                                                                                                                                                                                                                                                         |
|----|-----------------------|-------------------------------------------------------------------------------------------------------------------------------------------------------------------------------------------------------------------------------------------------------------------------------|
| 1  | 가락선 악보에 의한 즉흥 가락 연주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선 카드보고 즉흥 가락 연주하기</li> <li>• 가락선 카드 중 3개를 연결하여 가락선 악보 만들기</li> <li>• 가락선 악보에 의한 가락 연주하기</li> <li>• 악기를 정하여 연주 발표 계획하기</li> <li>• 가락 연주 발표 및 평가하기</li> </ul>                                                                        |
| 2  | 주어진 리듬꼴로 8마디 가락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카드 제시하고 가락 문답하기</li> <li>• aa 형식, ab 형식 알기</li> <li>• 같고/비슷하고/다른 가락 구별하기</li> <li>• 주어진 리듬꼴로 각자 4마디 즉흥 가락 탐구하기</li> <li>• 돌아가며 즉흥 가락 발표하여 좋은 가락 정하기</li> <li>• 정한 가락을 탐구하여 모듬별로 8마디 가락짓기</li> <li>• 8마디 가락 연주 발표 및 평가하기</li> </ul> |
| 3  | 주어진 화음에 어울리는 8마디 가락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음 듣고 가리기</li> <li>• 화음과 어울리는 4마디 즉흥 가락 탐구하기</li> <li>• 끝나는/계속되는 느낌의 가락 탐구하기</li> <li>• 돌아가며 즉흥 가락 발표하여 좋은 가락 정하기</li> <li>• 정한 가락에 이어 8마디 모듬 가락 탐구하기</li> <li>• 8마디 가락 연주 발표 및 평가하기</li> </ul>                                      |
| 4  | 단순한 가락을 변주하여 8마디 가락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4마디 가락 익히기</li> <li>• 단순한 오스티나토 베이스 반주에 어울리는 다양한 가락 연주하기 (리듬과 가락을 변주하여)</li> <li>• 돌아가며 즉흥 가락 발표하여 좋은 가락 정하기</li> <li>• 정한 가락에 이어 8마디 모듬 가락 탐구하기</li> <li>• 8마디 가락 연주 발표 및 평가하기</li> </ul>                                       |

<표 6> GI모형을 적용한 론도 형식 창작 학습

| 차시 | 학습 주제                                       | 학습 내용                                                                                                                                                                                                 |
|----|---------------------------------------------|-------------------------------------------------------------------------------------------------------------------------------------------------------------------------------------------------------|
| 1  | 론도 형식의 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감상하고 론도 형식으로 창작하기(리허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곡 감상하며 반복되는 주제 찾기</li> <li>• 론도 형식 알기</li> <li>• 8마디 가락 지어 발표하기</li> <li>• 모듬에서 3개의 가락을 골라 a, b, c로 정하기</li> <li>• 연주 연습하기</li> <li>• 발표 및 평가하기</li> </ul> |
| 2  | 론도 형식의 곡 연주발표회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론도 형식으로 연주 연습하기</li> <li>• 연주회하기</li> </ul>                                                                                                                  |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 관찰

연구자가 음악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5학년 한 학급의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업 현장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므로 완전 참여 관찰을 한 후 수업 참여 관찰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매 시간 수업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하여 비디오 분석일지를 작성하였다.

#### 2) 면담

반구조화(비표준화)된 면담 형식을 취하여 창작 학습과 협동 학습에 관련된 내용의 개방적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을 사전에 개발하여 면담시 면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 의견,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개인 면담은 일반 제보자 면담과 조직 관리자 면담을 병행하였다. 일반 제보자 면담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수업 중에 발전의 양상이나 문제점을 나타내는 학생과 수시로 하였으며, 조직 관리자 면담은 연구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와 모둠 구성 시 필요한 아이디어와 수업 진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학생들에 관한 생활지도 내용을 위주로 주 1회 10분 정도 하였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에 참여, 개인 면담에 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단 면담은 각 모듬의 이끄미들을 중심으로 주 1회 10분~30분 정도로 모듬 활동 시 필요한 활동 안내와 모듬 활동 시 어려운 점에 대해 면담하고, 계획된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집단 면담(5명)을 녹음하여 면담일지를 작성하였다.

#### 3) 내용 분석

수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학습지와 악보, 모듬 평가지, 자기 평가지, 모듬일지, 음악일지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실증적인 방식으로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GI모형을 적용한 창작 학습이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사회적 학습 능력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업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와 관찰 및 면담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 자료로는 창작물(학습지, 악보 및 연주), 모둠 평가지, 자기 평가지, 모둠일지, 음악일지, 수업 소감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사 자료는 수업 참여 관찰일지와 비디오 분석일지, 학생들과의 면담일지, 및 동료 교사들의 수업 참관록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7> 분석 영역 및 항목

| 영역     | 항목                                                        | 자료                                                                                                |
|--------|-----------------------------------------------------------|---------------------------------------------------------------------------------------------------|
| 음악적 측면 | 음악적 이해력 증가<br>창작 능력 향상<br>연주 능력 향상<br>음악적 반응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 창작물(학습지, 악보, 연주), 모둠 평가지, 자기 평가지, 모둠일지, 음악일지, 수업 소감문, 수업 참여 관찰일지, 비디오 분석일지, 면담일지, 동료 교사의 수업 참관록 등 |
| 사회적 측면 | 사회적 기술의 향상<br>반성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

### 1. 음악적 측면

#### 1) 음악적 이해력

모둠원들이 함께 주어진 창작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서로의 음악적 이해를 점진하게 되고 누가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파악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가르치며 배우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창작 학습을 통한 개념 이해는 더욱 상승 효과를 내게 되었다.

리듬감과 박자감이 정확해졌다. 창작 학습을 위해서는 음악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리듬과 박자에 대한 개념의 체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초기 단계에서는 리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다양한 리듬을 자유롭게 구사하지도 못하였으며 리듬감과 박자감이 정확하지 않았다. 몇몇 학생들은 4분음표와 8분음표 리듬의 길이를 제대로 파악 못하였다. 리듬악보에는 리듬을 박자에 맞게 잘 그려 넣고 리듬말은 ‘♪ ♪ (타 타)’와 ‘♫ (티티)’로 맞게 읽었으나 리듬치기가

정확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만든 리듬 악보와 실제로 연주하는 리듬이 일치하지 않았다. 리듬짓기에서 가락짓기로 넘어 가는 단계에서 특히 리듬과 가락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돈했었는데 몇 차례의 가락짓기 학습이 거듭되는 동안 자신들의 작품을 연주하고 평가받으며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리듬과 박자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일정한 박자 안에서 다양한 리듬꼴을 여러 모둠원들과 함께 다루다보니 차츰 리듬감과 박자감이 발전되고 정확해졌다.

“창작 학습을 하니까 음악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리듬의 길어도 정확하게 모르고 박자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음악을 직접 만들면서 공부하니까 나와 친구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아는지 무엇을 잘 모르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헛갈리지 않고 확실히 알고 노력하다보니까 잘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리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지막 단계인 론도 형식으로 연주하는 시간에는 그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리듬감이 내면화되었는지 1모듬이 마지막 순서로 발표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리듬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반 아이들 전체가 흥겨운 느낌으로 리듬 반주를 하였다.

“가락이 흥겨워서 우리들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모듬원들이 서로 호흡을 딱딱 맞춰서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신이 나서 저절로 그렇게 되요.”

“지난 발표 시간에 들었던 곡이라 익숙해져서 반주가 저절로 나와요.”

가락선을 활용한 창작 및 연주가 가락의 방향과 흐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리듬에서 가락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가락선 카드를 제시하고 가락의 방향을 따라 마음대로 연주해 보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가락을 들을 때도 가락의 방향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으나 가락선 카드를 보고 악기로 즉흥연주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가락을 지어 집단 탐구에 참여하는 동안 가락선의 방향 및 흐름에 집중하게 되어, 자신들이 지은 가락을 가락선으로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려주는 가락을 듣고 가락선의 방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듬 학습으로 하다보니 틀린 부분들은 서로 교정해 주었다.

“가락선 카드를 보며 가락을 즉흥연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졌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부

답이 없다.”

“이제는 가락을 들으면 그냥 지나쳐서 듣지 않고 가락의 방향을 생각하게 된다. 가락선의 모양도 그려보게 된다.”

음악 형식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형식을 파악하고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창작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리듬 프레이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리듬을 박자에만 맞게 짓다보니 여덟째 마디의 리듬을 ‘ (티티티티)’로 짓기도 하고, 가락도 끝음을 ‘레’로 하여 끝나는 느낌이 나지 않게 짓기도 하였다.



<악보 1> 2모듬 리듬 게임 악보



<악보 2> 6모듬 오선 악보

차츰 가락을 지어 연주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동안 리듬 프레이즈가 자연스러워지고 연주하기 편하게 잘 지었으며, 계속되고/끝나는 느낌에 대한 감지력이 생겨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의 가락을 듣고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V도 화음의 음을 끝 음으로 사용하고, 끝나는 느낌이 나려면 V7 화음을 거쳐 으뜸음으로 끝나야 됨을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lt;악보 3&gt; 2모듬 오선 악보

aa'형식이나 ab형식으로 가락짓기를 반복하다보면 같고/비슷하고/다른 가락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이 개념을 창작 과정에 다시 적용하게 됨으로써 반복과 모방, 변화의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먼저 지은 4마디 가락에 이어지는 가락을 앞의 4마디 가락과 비슷하게 하여 끝나는 느낌만 나게 지으면 aa' 형식으로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락을 지을 수 있었어요.”



&lt;악보 4&gt; 6모듬 오선 악보

형식에 대한 발전 학습으로 론도 형식의 감상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감상한 후에 전 시간에 만든 모듬곡을 a로, 모듬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곡 중에서 b와 c를 정하여 abaca로 연주해 봄으로써 론도 형식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같고/다르고/같은 형식의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었다.

“오늘 론도 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론도 형식으로 연주도 하였다. 론도 형식이 같은 가락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고 재미있었다.”

“3모듬이 론도 형식이 잘 드러나게 가락을 지은 것 같다. 가락은 물론 악기 의 음색에 변화를

주니까 더욱 잘 나타난다.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다.”

“음악의 형식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적절한 자료와 협동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모두 목표에 도달시킨 것 같다. 그리고 알게 한 것뿐만 아니라 창작이라는 영역에 직접 적용시킴으로써 내면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담임교사 참관록에서)

## 2) 연주 능력

악기로 리듬과 가락을 즉흥연주하고, 8마디 악곡을 창작하여 연습하고 발표하는 동안 악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연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창작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리듬악기 다루는 능력도 서툴고, 가락악기를 다룰 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눈에 띄었다. 리코더와 멜로디언도 텅잉주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코더나 멜로디언은 음의 연결이 잘 안되고 운지도 자연스럽게 않았다. 악기 연주 능력이 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숙하였다.

학생들은 모둠 연주라는 과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연주 능력도 향상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알게 되었다. 모둠원들의 칭찬과 격려는 더욱 도전 의식을 갖게 했으며, 서로 열심히 가르쳐주고 배웠다. 연주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모둠에서 연주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연주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처음에는 모둠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모둠 연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츰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반복적인 연주 연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자신감은 창작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높여주고 이로써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연주 연습을 하였다.

특히 울림이 풍부하고 연주하기가 쉬운 음판 악기는 서로 먼저 연주하려고 다투는 아이들이 생겼으며, 탬버린으로 다양한 연주 주법을 습득하게 되었을 때 그 주법을 모둠원들에게 보여주고, 그 것을 본 다른 학생들도 그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연주 듣고 평가하는 시간에 학생들은 그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다같이 모둠의 연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모둠원들의 연주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모둠에서는 C가 리듬스틱으로, 4모둠에서는 D가 자일로폰으로 연주하고, 5모둠에서는 E가 악기 연주를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멜로디언을 잘 연주하여 모두 다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한 점이 참 좋았어요.”

“개별적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는 떨려서 잘 안 되는데, 내가 지은 가락을 모둠원들과 함께 연주할 때는 아주 많은 힘을 얻었다. 내가 틀릴 때는 F가 가르쳐주고 F가 틀릴 때는 내가 가르쳐

주면서 하니까 서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휴식 시간이고 점심 시간이고 틈만 나면 교실에 비치해 놓은 음판 악기로 기습곡을 비롯해 자신들이 지은 가락들을 모둠원들끼리 연주하곤 하였다. 이는 집단 탐구 학습의 결과로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상호 작용과 인간 관계의 개선, 그리고 더 좋은 곡을 작곡, 연주하려는 동기가 스스로 유발되어서 아동들의 음악성 향상에 일조를 한 듯하다.”(담임교사의 참관록에서)

### 3) 창작 능력

음표와 음의 길이와의 관계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리듬 읽고 치기에도 유창하지 않던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네 명이 함께 놀이 방식으로 리듬 창작을 거둬 나가는 동안 창작 수업에 대해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주어진 박자에 맞게 2마디 리듬짓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따라서 넷이서 2마디씩 이어 짓기 하여 8마디 리듬을 만드는 리듬 창작 단계에서 음악적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모듬원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다.

“박자치기를 하면서 리듬 이어 치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자꾸 틀리고 자신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쟁반노래방처럼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하였다. 내가 틀릴 때 이 끄미가 지적해 주고 도와주어 나중에는 잘 통과할 수 있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

기악 합주의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가락을 지어 연주하라고 하니 가락 학습 초기 단계에는 창작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다. 가락선 악보를 보고 가락선의 방향대로 마음대로 창작하는 수업에서 가락악기 연주 경험이 있는 몇몇 학생들은 여러 가지 즉흥연주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단순한 가락을 연주하거나 같은 모듬원의 연주를 모방하는 정도에 그쳤다.

“가락짓기를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어려웠다. 친구들도 나도 생각보다 가락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리듬이라든가, 화음, 음정 등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추어 창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하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생각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때 교사가 다양한 시범을 보이며 창작 아이디어의 폭을 넓혀 주면서 가락짓기의 수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 효과가 있어 학생들은 가락짓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듯 차츰 자신 있게 가락을 만들어 즉흥연주 하는 모

습을 보여 주었다. 집단으로 가락을 탐구하는 동안 아동들은 돌출되는 부담 없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가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창작 학습을 반복해 나가는 동안 학생들은 다른 모듬의 연주와 여러 감상곡을 듣기도 하면서 음악적 표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 훨씬 민감해져갔으며, 창작을 통한 연주 경험은 보다 적극적인 연주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다양한 연주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었다.

1, 2마디씩 돌아가며 리듬이나 가락 즉흥연주를 유창하게 잘 하기도 하였으며, 리듬 1마디 짓는 것도 자신이 없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8마디 가락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 중에 몇몇 학생은 모듬원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였지만, 론도 형식으로 연주하는 수업에서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된 8마디 가락을 지어 모듬에서 발표하였다.

각자 만든 가락을 돌아가며 연주하는 과정이나 그 중에서 모듬곡으로 뽑힌 가락을 함께 연주하여 더욱 자연스럽고 좋은 가락을 만들기 위해 집단 탐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면 집단 탐구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체험하게 되었다. 창작 학습에 전혀 자신이 없던 학생들도 근접영역에서 일어나는 또래 학습의 효과로 차츰 능동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창작 능력이 향상되었다. 모듬곡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 그게 좋겠다.”면서 다시 고쳐 연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언제?” 하면서 자기 의견을 열심히 내기도 하고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오, 바로 그거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며 칭찬하기도 하였다. 좋은 가락을 찾아낸 자신들이 대견스러운지 흐뭇한 표정들을 지으며 차츰 집단으로 가락을 탐구하는 활동에 익숙해져 갔다.

“모듬원들끼리 J가 해 온 가락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가락을 지었다. 가락짓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

“가락짓기를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서툴러서 가락을 지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좋은 가락을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집단 탐구 학습에 의해서 생긴 개별적 창작 능력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내면화를 꾀하기 위해서 도입한 ‘뮤직프로’를 통한 창작 학습은 악보와 연주를 동시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점검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가락이 악보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창작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실감하는 듯 하였다.

“ ‘뮤직프로’로 창작하는 공부가 재미있다. 악보에다 작곡가에 내 이름을 쓰는 기분이 너무 뿌듯하였다. 나도 가락짓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럽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만들었던 모듬곡을 a로 하고 모듬원들이 각자 만든 8마디 곡을 발표하여 그 중에서 뽑은 두 곡을 b와 c로 하여 발표한 론도 형식으로 창작하는 수업에서는 그 동안 8마디 곡만 연주하다가 abaca로 길게 만들어 연주하다보니 좀 어렵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발표하고 수정하고 리허설까지 한 후에 다시 연주 발표회를 하는 동안 론도 형식과 같이 어렵게 생각되었던 형식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8마디 보다 긴 곡들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는 아동들도 생겨났다.

“오늘은 론도 형식으로 연주회를 하였다. 처음에는 론도 형식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오늘 연주 발표회를 하고 보니 별로 어렵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시간까지는 8마디만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긴 곡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창작 학습의 출발점이 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기초적인 리듬 학습에 소요된 학습 기간이 길었고, 가락 창작 학습이 집중되었던 5월과 6월 사이에 계속되는 휴업일, 월드컵 행사의 열기로 인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 담임교사의 입장으로 연구를 추진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즉흥연주에서는 다양한 리듬, 빠른 리듬 등도 사용하고 음역도 넓게 활용하고 반음도 사용하였으나, 악보에 의한 가락짓기를 할 때는 다같이 연주하기 쉬운 리듬과 주로 ‘가온 도’에서 ‘한 옥타브 위의 도’ 사이의 음역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aa’ 형식이 창작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aa’형식으로 창작한 곡이 많았다. 연주에 있어서는 신체 표현을 통한 리듬 반주를 곁들여 좀더 다양한 신체악기를 활용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가락의 느낌이나 형식에 따른 신체 표현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관계로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한 리듬 오스티나토 정도를 연주하는 것에 그쳤다.

#### 4) 음악에 대한 반응 및 흥미도

창작 학습의 기본 능력인 리듬감을 향상시키고 창작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놀이 식으로 접근한 4인 1모듬 리듬 창작 학습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높은 흥미를 보여 주었으나 가락악기를 도입하여 가락선을 따라 마음대로 즉흥 가락을 연주하게 한 6인 1모듬 가락 창작의 초기 단계에서는 협동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창작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악기를 다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떠오르는 가락을 어떻게 악기로 표현해야할지 막막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악기만 만지작거리거나 장난을 치며, 연주하는 학생들을 쳐다보고만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끄미와 몇 명의 학습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만으로는 원만한 모둠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여기저기서 학습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나타났고, 가끔 울기도 하고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다툼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이 발생했다.

“오늘 우리 모둠은 엉망이었다. 서로 다투다가 기어이 K는 울고 있고 L는 자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선생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주실 때까지는 모둠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처음 가락악기로 창작해보는 것이라 잘 몰라서 재미가 없었다.”

연주 능력 및 창작 능력 부족으로 모둠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둠별 중주 발표회를 실시하고, 또 가락악기 연주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리듬악기나 신체악기로 리듬치기나 박자치기를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기 능력에 맞는 악기를 선택해서 참여하게 하였으며, 리코더나 멜로디언보다는 연주 방법이 쉬운 간이 실로폰이나 자일로폰, 메탈로폰, 글로겐슈필 등과 같은 음판 악기를 수업에 활용하였다.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활동은 차츰 수업에 활력을 더해갔고, 학생들은 차츰 가락악기 연주를 통한 창작 학습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은 가락이 모둠 내에서 발표되고, 집단 탐구의 과정을 거쳐 모둠의 곡으로 정해져 다같이 연주되는 과정에서 모둠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첨가되어 다듬어지고 완성되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특히 독보력과 연주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모둠의 이끄미와 연주 능력이 좀더 나은 모둠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가락짓기와 연주에 차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흥미가 없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모둠 평가를 위해 모둠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 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 책임 의식은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는 연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를 높여 주었다.

“모둠원들의 악기 연주 능력이 늘어나면서 창작 수업이 재미있어졌다. 처음에는 장난만 치던 우리 모둠원들이 이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기뻐다.”

“오늘은 그 동안 하지는 않고 잔소리만 하던 M이 열심히 재미있게 잘해주었다. 리코더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재미있네.’하고 말하였다.”

“음악 선생님이 모르는 비밀, 그것은 바로 음악 선생님이 없을 때 악기 연습을 대개 많이 했는 것이다. 따로 따로 연습하다가 같이 연습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악기 연주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꾸 연습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창작 학습이 거듭됨에 따라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와 애호심이 고취되어 음악의 생활화

라는 가치 태도 및 내면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학생들의 음악일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음악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남의 것을 많이 들어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도 꽤 좋은 것 같다.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발을 박자에 맞춰 치며 몸을 흔들고 있다.”

“ ‘소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sorinara. co. kr)’에 들어가니 바로크와 서양사 음악이 있고, 그 중에 음악 이론이 있었다. 음악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점점 궁금한 게 많아진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듬 학습이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 학생들에게 적절한 모듬 활동을 찾아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며, 또래 집단의 모델링을 통해서서히 경험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창작품 연주하기 및 연주 듣고 평하기 활동을 통해서 음악적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되었다. 창작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리듬이라는 용어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리듬이라고 해야 할 곳에 음표나 가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리듬과 박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주 방법에 대한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악기하기라고 하였으며, 리듬이 정확하다고 해야 할 곳에 음이 정확하다고 하는 등의 표현이 많았다. 그러나 창작 활동 및 발표 듣고 평하기 등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차츰 리듬이나 일정박, 박과 박자, 가락, 화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평하기를 하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 올라가는 가락, 내려가는 가락, 머무는 가락, 동형진행 등을 바르게 표현하고, 형식을 나타내는 aa'형식, ab형식, 론도 형식 등의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하였다.

## 2. 사회적 측면

GI모형에서 이루어져야 할 상호 존중 및 상호 의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점검하는 활동들이 거듭되면서 모듬 활동은 원활해졌으며, 이끄미들은 연구자와의 꾸준한 면담을 통해 자기 모듬의 모듬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협동 학습을 주제로 하는 본 연구에 있어 연구자가 교과 담임교사로서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1) 또래 학습 분위기

창작 학습은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큰 차이가 심각한 걸림돌이 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학습 능력의 차이를 역이용하여 모둠 내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또래 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하였다.

모둠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모둠 내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활발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가르치고 배우는 또래 학습이 우수 학생의 일방적인 주도만이 아님을 학생들과의 면담일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또래 집단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능력이 있는 학생도 협동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잘 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협동 학습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부족한 점하고 제가 부족한 점하고 다 틀리니까 다른 친구의 부족한 점은 제가 채워줄 수 있고 제가 부족한 점은 다른 친구가 채워줄 수도 있어서 협동 학습을 통해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배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잘 잊혀지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협동 학습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또 좀 부족한 아이들하고 수준을 맞추다보면 지난 것, 먼저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것도 더 잘 기억해서 잘할 수 있게 되요.”

능력이 좀 뒤지는 학생들 입장에서 협동 학습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하다보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다른 애들은 잘하고 다했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아예 하려고 들지 않고 포기하게 돼요.”

“협동 학습을 하면 어려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옆에 잘하는 친구가 그것을 먼저 알아 듣고 더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니까 잘 따라갈 수 있게 돼요.”

## 2) 사회적 기술

모두가 경험이 적고 서툰 창작 학습이니 만큼 서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조금씩 발전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기로 하였으며, 들어서 기분 좋았던 말들을 발표하고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도움을 청하는 말 등으로 분류하여 게시판에 게시한 후에 수시로 사용하도록 한 결과 아동들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모둠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모둠원 간의 상호 평가는 자신의 모둠 활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잘한 점을 칭찬하는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 학생들은 그 날의 활동 후에 다음과 같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였다.

“O가 의견을 잘 내고 격려를 잘하였다.”

“P가 리듬감각이 좋고 리듬을 잘 만든다.”

“R이 만든 가락이 연주하기도 좋고 재미있고 신난다. 음악성이 좋은 것 같다.”

“S가 가락을 잘 만들어서 우리 모듬 가락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칭찬하고 격려하기가 꾸준히 계속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참여가 모듬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욱 잘하려는 동기유발이 이루어졌다. 협동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다툼과 방관과 방해의 모습들은 차츰 줄어들고 모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태도는 모듬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과 더불어 재미 있는 모듬 활동의 즐거움으로 이어졌음을 모듬일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모두가 차츰 모듬 역할을 잘해 주고 협동도 잘되니까 너무 재미있다.”

“오늘은 모두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칭찬해주고 싶다. 가락도 잘 짓고 발표도 잘하고 말을 잘 따라 주었다. 기분이 좋다. 모두 열심히 해주어 공동 1등이 되었다. 그 동안 노력하여 열심히 한 것이 너무 보람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모듬원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협동 학습을 하다보면 서로에 대해 관심과 친근감이 생겨서 모듬원들과 친해지게 되며,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된다고 다음과 같이 소감문에 표현하였다.

“협동 학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는 게 많지만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은 만큼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겨 이해심이 높아지고 더욱 모듬원들끼리 친하게 지내게 된다.”

“협동 학습으로 공부하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많아서 좋다. 친구들도 의견을 많이 낸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 3) 반성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공동의 모듬 과제를 GI모형에 적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작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창작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반성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능력이 뒤지는 모듬원들을 창작 과제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모듬원들의 창작 및 연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연주할 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이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고 악기를 나누고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의 능력도 알게되고 연주 능력도 향상되어 모듬 활동이 차츰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저희 모듬에서는 S가 악보를 못 보니까 가락악기 연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악보를 좀 볼 줄 아는 T를 S 옆에 앉게 하고 제가 먼저 T한테 가르쳐 주면 T는 S한테 가르쳐 주도록 하었어요. 그런 후에 다같이 연주할 수 있었어요.”

“저희 모듬에는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악기 연주 능력이 부족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락을 복잡하게 지으면 다같이 연주하기가 힘들어서 반복되는 음과 가락을 많이 사용하여 지었더니 연주하기도 쉽고 재미있으면서 기억하기에도 좋았어요.”

발표 듣고 평가하기, 수업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피드백하기, 모듬일지 쓰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창작성과 활동 및 발표 태도, 모듬원 간의 상호 작용 등에 대한 반성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모듬이 지은 가락의 끝에서 끝나는 느낌이 나지 않게 지어 다른 모듬 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다음에 가락을 지을 때는 끝나는 느낌이 나도록 잘 생각해서 지어야겠다.”

“우리들이 수업하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고 녹음하여 다시 보고들을 때 ‘아, 우리가 저런 점을 잘못하였구나, 너무 시끄러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찾아나갈 수 있었다.”

“모듬일지를 쓰다보니 모듬원들이 얼마나 발전했나 알 수 있고, 반성할 점과 앞으로 노력할 점을 잘 알게 되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5학년까지의 창작 학습 내용 중에서 GI모형의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안을 구안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흥미도, 사회적 학습 능력 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자료로는 학습지와 악보, 모듬 평가지, 자기 평가지, 모듬일지, 음악일지 등을, 교사 자료로는 수업 참여 관찰일지와 비디오 분석일지, 면담일지, 동료 교사의 참관록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과 가락, 형식 등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및 감지력이 향상되고 이를 활용하여 즉흥연주 및 8마디의 가락을 지을 수 있는 창작 능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모듬의 연주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집단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연습하는 동안 학생들의 연주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모듬별로 창작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동안 자신이 지은 가락이 모듬 내에서 발표되고 모듬의 곡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면서 창작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음악적 흥미도가 향상되었다.

넷째, GI모형에 의해 자기에게 맞는 역할과 악기를 나누어 맡아 활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또래 학습이 활발히 일어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배려하는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었다.

다섯째, 공동의 모듬 과제를 집단 탐구 학습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모듬원들의 창작 및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주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다.

여섯째, 모듬별로 서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모듬곡을 만들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과 다른 모듬의 연주를 듣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

일곱째, GI모형을 활용한 창작 수업이 음악 수업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 서울 : 교육부.
- 교육부 (200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서울 : 교육부.
- 길병희 외 (2001). 교육 연구의 질적 접근.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용희 (2001). 창의성 계발을 위한 즉흥연주. 음악교육연구. 제 21집, 1-26.
- 방금주 · 김용희 (2000). 음악 창작 아카데미. 서울 : 학문사.
- 변영계 · 김광휘 (2000).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석문주 (2001). 창작 수업의 효과. 음악교육연구. 제 20집, 75-94.
- 석문주 (2002).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 음악교육연구. 제 22집, 29-57.
- 이동우 (1997). 집단탐구 수업과 전통적 수업이 지식 · 탐구기능 ·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용숙 · 김영천 (1992).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장진갑 (2001) Kagan의 협동학습 구조 적용 사례 연구. 열린교육실행연구 제 4호, 197-234
- 정문성 외. (2002).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문출판사.
- 정문성 · 김동일 (1998). 열린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 Anderson, L. (1995)(2nd ed).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New York : Elsevier Science Ltd.
- Borich, G. (1996)(3rd ed). Effective Teaching Method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Johnson, R. & Johnson, D. (1989). Cooperation & Competition : Theory & Research. Edina, MN : Interaction Book Company.
- Johnson, D. (2001). 학생들과 함께 하는 협동학습. 추병완 역. 서울 : 백의교육 현장총서.
- Joyce, B. & Weil, M. (1996)(5th ed). Models of Teaching. Needham Heights, MA : Allyn & Bacon.
- Kagan, S. (2000). 협동학습. 기독교초등학교 협동학습연구모임 역. 서울 : 디모데출판사.
- Sharan, Y. & Sharan, S. (1994). What Do We Study? How Should We Go

- About It? Investigation in the Cooperative Social Studies Classroom. In R. Stahl(Ed.), Coopera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257-276. Reading, MA : Addison-Wesley Pub.
- Sharan, Y. & Sharan, S. (1994). Group Investigation in the Cooperative Classroom. In S. Sharan(Ed.), Handbook of Cooperative Learning Methods. 97-114. Westport, CT : Greenwood Pub.
- Slavin, E. (1995)(2nd ed). Cooperative Learning : Theory, Reserach, and Practice. Needham Heights, MA : Allyn & Bacon.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 of Creating Music using GI(Group Investigation) Model in the elementary school

Seo, Chun-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lesson plan for creating music class in elementary school using GI(group investigation) model and examine its effect in a bid to improve problem-solving ability and musicianship.

After learning contents that were expected to be appropriate for the application of GI model were selected from the creating activity of the music curriculum for grade 5, a instructional model of creating music was prepared on the basis of Sharan's instructional model, and then a sequential lesson plan was constructe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5 fifth graders from G elementary school in Seoul, where the researcher has taught music classes. The experimental teaching was observed and the students were interview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GI-based music classes. To see if there were any changes in their music ability, musical interest and social learning capabilities, worksheets, music notes, group process evaluation, peer evaluation form, music journal and group journal were investigated, and the observation journal made by the researcher, video tapes and a colleague teacher's observation record were review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creating music.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they ca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usic concepts, like rhythm, melody and form, and were able to perceive these concepts more keenly. As a consequence, the ability to improvise music improved, and they were capable of composing a short melody.

Second, performing ability got better while being engaged in group inquiry using different instruments.

Third, when they fulfilled the given task in group, they found it delightful to present their work and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it within their groups. They became more interactive and alert in the class and they showed bigger interest in music.

Fourth, the GI model gave an opportunity for them to play a specific role suitable for each of them and play different instruments. And peer teaching was facilitated and their social skills improved, as they praised, encouraged and gave consideration to one another.

Fifth, when they were jointly engaged in group inquiry to work on the given assignments, their composing and performing ability got better, and their problem-solving ability also advanced in the middle of studying how to perform the composition better.

Sixth, they acquired a higher reflective thinking when they shared their ideas, made and modify songs in group, and listened to and assessed the other groups' performance.

Finally, creating music by GI model can be applicable to music class in the elementary school.

주제어 : GI모형, 음악창작수업